



# 세계 69작가가 전하는 연대·치유·우정의 메시지

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뚫고 조심스런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.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5월9일까지 39일간 계속되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40여개국 69작가(팀)가 참여해 40점의 커미션 신작 등 모두 450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. '떠오르는 마음, 맞이하는 영혼(Minds Rising, Spirits Tuning)'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올해 행사는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, 광주극장,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, 옛 국군광주병원 등 광주 시내 곳곳에서 진행중이다. <편집자주>

사진=최현배 기자 choi@kwangju.co.kr



5월 9일까지  
비엔날레전시관  
국립광주박물관  
광주극장  
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



- 1 헬멧과 조개껍질, 휴대폰으로 작업한 에모 데 메데이로스 작품 '하이퍼 리시버'
- 2 시안 데이리트 작 '전쟁의 책략'
- 3 옛 국군광주병원에 전시된 문선희 작가의 '물고, 물지 못한 이야기\_목소리'
- 4 카리빙 필름 콜렉티브의 '선조들과 함께 나아가기:인생의 낮'은 85년 역사의 광주극장에서 관람객을 만난다.
- 5 북유럽 사미족 작가 오우티 피에스키의 '여성 선조의 금지의 모자'
- 6 광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 만나는 코라크리트 아루나나논드차이 작 '죽음을 위한 노래'
- 7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파빌리온 프로젝트 참가작 덩자오민의 '이 오랜 세월 동안'
- 8 비엔날레전시관 4전시실에는 티모테우스 앙가완 쿠스노 작가의 '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'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있다.

관람안내

전시장	광주비엔날레 전시관	국립광주박물관	광주극장	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
관람시간	10:00~18:00 매주 월요일 휴관	월~금, 일 10:00~18:00 토 10:00~20:00	11:00~19:00 매주 월요일 휴관	10:00~18:00 매주 월요일 휴관

